

애틀랜타, 월드시리즈 우승…26년 만

내셔널리그 챔피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 통산 네 번째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메이저리그'에 따르면 애틀랜타는 2일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원정 6차전서 타선이 폭발하면서 7-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한 애틀랜타는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게 됐다.

애틀랜타는 전신인 보스턴 브레이브스(1914년) 시절 첫 우승을 시작으로 1957년 밀워키 브레이브스, 그리고 1995년에 이어 구단 통산 4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품에 안았다. 1990년대 내셔널리그 최강팀으로 군림했던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우승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애틀랜타는 그렉 매더스, 톰 글래빈, 존 스몰츠 등 사이영상 수상자 3인방을 앞세워 90년대와 2000년대를 걸쳐 무려 1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내달렸다.

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과는 지독하게도 인연이 닿지 않았다. 애틀랜타는

화려했던 투수진과 단단한 선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딱 한 차례만 우승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따라서 올 시즌 26년만의 우승 감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이어지던 무관의 한을 풀면서 아직까지도 우승에 닿지 않는 팀에 대한 관심도 일고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들 중 가장 오랫동안 우승 반지를 손에 넣지 못한 팀은 클리블랜드다. 1948년을 끝으로 우승과 멀어졌던 클리블랜드는 지난 2016년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나 염소의 저주를 깨기 위한 시카고 컵스의 기세에 밀려 눈물을 흘친 바 있다.

클리블랜드에 이어 1960년대 창단한 텍사스, 샌디에이고, 밀워키 역시 아직 까지 우승 경험이 없는 팀들이다. 여기에 1977년 리그에 참가한 시애틀은 44년의 세월 보내며 우승은커녕 월드시리즈에도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남아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절반인 15개팀이 20년 이상 우승 경험이 없으며 내년 시즌에는 2002년 랠리 몽키 신드롬을 일으켰던 LA 에인절스가 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최지만 트레이드 논의될 수 있다"



▲ 최지만. 사진=shutterstock

탬파베이는 미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의 대명사다. 적은 팀 연봉으로 성적을 내는 능력이 특별하다.

유망주를 보는 눈, 타 팀이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재기시켜 잘 써 먹다 연봉이 부담되는 시기가 오면 이를 트레이드시켜 또 다른 선수를 얻는다. 뒤집어 생각하면 텐파베이에서 룽면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대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기 전 트레이드하거나 논텐더(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춘 3년차에서 5년차 선수들에 대해 보류 조항을 포기시키는 것)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의 로스터 정리를 점치면서 트레이드 대상 중 하나로 최지만을 꼽았다. 최지만이 못해서, 팀에 미운 팀이 박혀서 그런 것이 아니다. '탬파베이 타임스'는 "답은 쉽다. 연봉이 많은 선수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게 텐파베이의 방식이다.

이 매체는 이중 최지만에 대해 "최지만을 대체할 좌타 1루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텐파베이는 그 자리(1루수)에 더 많은 파워를 불어넣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것을 선호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당장 로스터에 마련한 대안은 있지만, 기존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를 통해 1루 자리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최지만(31)에게도 그런 시기가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지만은 올해가 연봉 조정 자격을 얻은 첫 해였다. 중재위원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승리해 245만 달러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마스가 예상한 최지만의 내년 연봉은 350만 달러 정도다. 타 팀이라면 크지 않은 액수겠지만, 텐파베이에서는 서서히 '가격 대비 효율성'을 생각할 연봉이다.

이에 최지만도 트레이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지역 최대 언론인 '탬파베이 타임스'는 1일 텐파베

최지만은 트레이드 논의에 대해 항상 있는 일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텐파베이에서 3년 반을 뛰다보니 구단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트레이드가 꼭 나쁜 것도 아니다. 필요해서 영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툰 시스템이 확고한 텐파베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빅마켓 팀으로 간다면 개인의 가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내셔널리그 챔피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 통산 네 번째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우승 확정 후 한데 얹겨 기뻐하고 있는 선수들. 사진=nbchicago.com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